



4월 19일  
월요일

# 보도자료

생명의 땅 전남  
Land of Life, Love, Jeonnam

실국	농식품유통과	과장	강종철	팀장	김영석	☎	286-6430
----	--------	----	-----	----	-----	---	----------

## 전남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공모사업 전국 사업비 50% 확보!

- 여수 돌산갯, 해남 고구마 특화자원, 인프라조성 등 4년간 30억원 지원 -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올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여수 돌산갯, 해남 고구마지구가 최종 선정돼 4년간 지구당 국비 15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30억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4개소 중 최다인 2개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남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식품부의 심사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노력한 결과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매실, 유자, 한우 등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산물 제조·가공의 2차산업, 유통·체험·관광 등 3차산업을 연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여수 돌산갯 지구는 ‘신(GOD)이 내린 선물, 여수 돌산갯 지속가능한 농촌 융복합산업화로 날개를 펴다’를 비전으로 돌산읍 일대에 ▲ 돌산갯 복합체험센터 설치, ▲ 돌산갯 체험관광 인프라 조성과 ▲ 돌산갯을 활용한 디저트 및 HMR 상품개발, ▲ 돌산갯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이 추진된다.

여수돌산갯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은 여수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여수시교육지원청, 농협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오는 2024년 까지 매출액 1천2백1천8백억 원을 비롯 관광객 4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남 고구마 지구는 ‘고구마산업 육성을 통한 해남 고구마산업의 융복합 실현’을 비전으로 화산면을 거점으로한 해남읍, 삼산면과 연계하여 ▲ 고구마 저온저장 시설 증설, ▲ 가공시설 구축, ▲ 고구마 제품 브랜드 개발, ▲ 고구마 공동 포장재 규격화, ▲ 고구마 마케팅 등이 추진된다.

해남고구마 융복합사업단은 해남군 부군수를 단장으로 광주전남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협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오는 2024년 까지 매출액 238억 원을 비롯 관광객 87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전남도 강종철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전남도와 여수시, 해남군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여수 돌산갯, 해남 고구마 등 지역의 특화자원을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생산에서 가공·유통·체험관광이 어우러져 전국 농촌융복합지구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15년부터 120억원을 지원하여 영광 찰보리, 고흥 유자, 곡성 멜론, 순천 매실 등 4개 지구를 조성한 바 있다.